"하나님을 믿으라(Have faith in God-흠정역). (막 11 :22)
허드슨 테일러는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라(Have faith in God)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Hold on to the faithfulness of God)" 로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고 표현하면 강조점이 당신의 믿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로이드 존스 교리강좌 시리즈 1/부흥과 개혁사)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평안하시지요? 신실하신 그분으로 인해 제 마음이 주께로 향합니다!

5월에는 잠시 키르기스스탄을 떠나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소속단체의 총회가 있었던 터키를 들려 작년에 기적으로 찾은 프랑스 큰형 네 가족을 방문하였습니다. 끔찍한 한번의 실수로 47년을 노란색의 피부를 가진 프랑스인 살았던 큰형, 그리고 아직도 모든 곳으로부터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또한 칠십대가 된 부모님, 매년 한번이라도 건강한 두손으로 큰아들 얼굴이라도 만지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서 부모님이 프랑스로 날아오셨습니다. 세가족이 큰형 네 아파트에서 두주를 머무르며 형의 양어머니와 가족들, 프랑스 형수님의 가족들, 한국입양인 친구들을 만나며 마음 곳곳에 새겨들 추억을 적었습니다. 함께 김치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프랑스 형수의 현지식 요리와 이미 청년향 풀풀나는 조카들과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큰형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비쉬켁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며칠 전, 한눈에 봐도 사연 있어 보이는 초라한 행색의 한국분이 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여권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자신의 병약한 건강상태를 증명하러 방문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 의사분인 닥터 브랫과 함께 환자를 도왔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열리었는지 자신이 이곳에 와서 사기 당해 전재산을 잃은 것과 그로 인해 분노와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누었습니다. 의사선교사인 브랫이 저에게 뜬금없는(?) 통역을 요청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습니다. 조심스레 통역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은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따스하게 대해준 외국인이 처음이었다고 한국에 들어가면 꼭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약속했습니

다.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진료를 마쳤습니다. 엘딕센터에 클리닉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기본이 30분이 넘습니다. 그날도 한시간 넘게 그 환자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으로서는 짧고 더 많이 환자를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는 동역자들이 참 귀합니다.

9월부터는 모든 의사분들이 돌아오고 레지던트들을 받아 훈련시키는 것과, 이동진료 사역, 그리고 현지 목회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역이 진행됩니다. 어제 엘딕의 인스티튜에(석사과정) 대한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열망의 가진 실력 있는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는 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의학분야에서는 닥터 브래드, 덴탈분야에서는 닥터 문누가님과 엔지니어링을 위해서는 미국의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임박사님이 함께 인슈티트 사역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엘딕센터의 17명의 현지 직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과, 그들이 각 현지교회 및 공동체에서 리더 혹은 팔로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더욱 많은 지혜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두손 모아주십시오. 함께 사역했던 J 사역자가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큼 큰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겼던 리더였는지 빈자리가 큽니다. 저의 모자람 보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더 큼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밝은빛 비추리 가족은 조용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두자녀들은 바쁜 아빠 때문에 길고 긴 방학을 집에서 유투브 시청을 하며 보냈지만, 사랑하고 행복하다고 자주 표현 주는 고마운 아이들입니다. 아내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사이버대학을 통해 영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 학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밝은빛 비추리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두손 모아주십시오.

2019년 9월의 시작에 밝은빛 비추리 가족 드림